



## 칼럼

### 인문학의 공공성을 묻다



남근우

동국대학교 다름아카데미 교수

근년 공공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그것은 시민사회론의 등장과 관련이 있겠다. 종래 공공성은 대개 ‘공(公)≡관(官)’이 윤곽과 내용을 제시하고 그 실천 또한 주도하기 일쑤였는데, 1980년대 이후 시민적 공공성의 중요성이 대두한 것이다. 실제 국내외적으로 현실 정치를 비롯한 경제, 사회 등의 여러 영역과 부문에서 거버넌스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수평적 혼성과 민주적 논의, 합의적 의사결정이 긍정적인 목표로 추구되곤 한다.

이러한 협동적 담론 구성과 협업의 실천 양상은 지식생산과 그 사회실천의 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9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기왕의 분과 학문에 ‘공공(public)’이란 관형어를 단 학문 분야가 부상한 것도 이와 연동한다. 공공경제학이나 공공정책학과 같은 실용적 학문은 말할 것도 없고, 종래 응용과는 거리가 먼 인문사회계의 분과 학문에까지 확대되어 가는 모습이다. 공공역사학을 비롯한 공공고학, 공공지리학, 공공사회학, 공공인류학 등이 좋은 보기이며 다음의 공공민속학 역시 그런 흐름의 하나이겠다.

미국민속학의 경우 뉴딜정책의 연방작가프로젝트가 상징하듯이 그 성립 초기부터 공공부문이 행한 사회, 문화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담당자들 역시 공공부문에 속하는 이들이 중심이었

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 민속학이 아카데미즘의 시민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순수’를 지향하는 강단민속학과 공공의 응용민속학 사이엔 커다란 인식론의 괴리와 패권 다툼이 있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 이후 학문의 공공성이 대두하면서 강단민속학은 협량(狹量)한 ‘올타리 치기’를 멈추고 또 공공부문의 민속학은 그 정치 권력성을 자각하며, 일반 시민들을 비롯한 행위 주체들의 다양성과 협동성을 보장,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공공민속학이라는 새로운 학지(學知)의 공론장을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민속학이 협동적 혹은 협업적 지식생산과 사회실천 양식으로 이행해 가는 것을 의미하며, 종래 학문과 지식을 아카데미즘과 공공부문이 지배해 온 것에 대한 자성의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 공공민속학의 탄생과 진화는 지구촌의 국지적 장소나 한정적인 학문 영역에서 펼쳐지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학문과 연구의 공공성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생산과 사회실천의 커다란 흐름이며, 세계의 모든 학지 활동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생산과 사회실천의 방식과 공론장의 변화, 동시에 그 행위 주체들의 다종다양화로 이른바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한 작금의 사회 상황에서, 특히 인문계의 학문들은 스스로의 목적과 대상과 방법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실정이다.

## Contents

- 02 인문대학 증개축사업 경과보고
- 03 인문대학 소식
- 04 교직원 동정
- 05 인사

- 06-09 학과 및 협동과정
- 10-11 연구소
- 12-14 4단계 BK21교육연구단
- 15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 16 취업
- 17-19 신간도서

인문대학 2호관 증개축사업 경과보고

1. <전남대학교 공간 환경 개선사업 신청> 일정

| 내용                     | 1월 |  | 2월 |  | 3월 |  | 4월 |  |
|------------------------|----|--|----|--|----|--|----|--|
| 인문대학 장기 발전방안 논의        |    |  |    |  |    |  |    |  |
| 2호관 리모델링 및 증개축사업 신청 논의 |    |  |    |  |    |  |    |  |
| <인문대학 2호관 증개축사업> 신청    |    |  |    |  |    |  |    |  |
| 기획처, 시설과 등 홍보          |    |  |    |  |    |  |    |  |
| 심의 결과 제2순위 결정          |    |  |    |  |    |  |    |  |

2. 교육부 국고사업 신청

- 교육부는 통상적으로 <국고사업>에 제1순위만 신청을 받으나, 제2순위인 인문대학도 신청할 것을 요청함.
- 5월 13일(목) : 예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제1순위 국고사업, 제2순위 BTL식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 국고사업(건축비-국고, 운영관리비-국고) / BTL식 사업(건축비-민자, 운영관리비-국고)
- 5월 14일(금) : 본부와 내부적인 논의 및 의견수렴 후 BTL식 <인문대 2호관 증개축사업> PPT 자료 제출.
- 5월 17일(목) : 표인주 학장 발표로 교육부에서 <인문대 2호관 증개축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 교육부 신규 시설사업 신청건 : 47건(31교)  
\* 심의위원회(교육부 3명,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 의결 종류 : 원안반영, 수정반영, 미반영  
같은 날, 교육부로부터 <인문대 2호관 증개축사업>은 수정 반영으로 조정 의결되어 <수정안> 제출을 요청 받음. 정구중 행정실장 및 시설과 팀장과 논의를 통해 <인문대 2호관 증개축사업> 수정안을 제출함.
- 5월 18일(금) : 심의위원회에서 <인문대 2호관 증개축사업> 수정안 재심의.
- 6월 1일(화) : 교육부 조정을 통해 부총장 및 사무국장으로부터 최종 선정 결과 통보 받음. 교육부 정책 변경으로 시설사업은 150억 이상은 BTL식, 이하는 국고사업으로 시행하게 됨. 인문대는 126억으로 국고사업으로 시행한다는 결과를 통보 받음.

3. <인문대 2호관 증개축사업> 개요

| 항목   | 내용                                  |
|------|-------------------------------------|
| 총사업비 | 126억(설계비 5억 6천)                     |
| 규모   | 4,765㎡(지하 1층, 지상 6층), (철거면적 4,179㎡) |

- 기존 시설(4,179㎡)에서 586㎡ 증가
- 향후 연구실 공간에 반영하여 20㎡ → 24~26㎡ 증가 예정
- 기존 공간실수(연구실, 학과실, 자료실, 행정실, 교수회의실, 세미나실 등) 유지
- 지하주차장 확보를 노력했으나 예산 삭감으로, 지상주차장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둠
- 총 사업비와 규모 범위 안에서 증개축 설계 조정 가능

2. 향후 계획

- 최종 선정시 22년도 설계과정에서 <인문대 2호관 증개축자문위원회> 구성
- 건축 설계 22년, 건축 시기는 23~25년도 예상

교육부 국고사업 신청과 발표 및 심의과정이 긴박하고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다 보니,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어려웠습니다. 다만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인문대학의 발전만을 생각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헤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문대학 학장 표인주 · 부학장 민진영 드림 -

## 인문대학

### 손희하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국어국문학과 손희하 교수가 국어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손 교수는 문화재 안내문, 세무 용어, 공문서 언어 등 공공언어 쉽고 바르게 쓰기 활동을 펼쳐왔다.

국어문화, 전래 지명과 지역어의 소중함을 알리며, '지역어 발굴 조사' 등을 진행해 지역민들에게 지역어 사용의 자부심을 심어 주었다. 또 활발한 학술 활동과 시민단체 교육봉사 등을 전개했다.

현재 광주광역시 국어진흥위원,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광주전남문화유산 연대 상임 대표, 광주박물관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국어정책진흥본부장 겸 언어정책부장, 한국지명학회장,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신해진 교수, 용봉학술특별상 선정

전남대학교가 개교 69주년을 맞아 교원의 연구 의욕 고취와 대학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제정한 용봉학술특별상에 국어국문학과 신해진 교수가 선정되었다.

신해진 교수는 1999년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부임한 이래, 텍스트 번역에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현재 약 82여권의 학술서적을 출간하고, 38편의 논문을 우수 학술지에 게재했다. 특히, 한국문학사의 공백기라 할 수 있는 17세기 민족수난기의 실기 문헌을 꾸준히 발굴해 번역했는데, 그 중 '반곡난중일기', '호산만사록', '심양왕환일기', '우산선생 병자창의록' 등은 호남문헌으로 초역한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현전 문유록계소설 대부분과 주목받지 못한 한문 필기류와 소설류도 번역했다.



### 철학과 성진기 명예교수, 카페 필로소피아 25주년

광주 대표적 인문학 공간 카페 필로소피아가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카페 필로소피아는 지금과는 달리 인문학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미미하던 1996년 1월, 당시 철학과 교수였던 성진기 명예교수가 문을 연 공간이다.

당시만 해도 학교 밖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은 전국적으로 전무하다시피했다. 이 때문에 카페 필로소피아는 문을 열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철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카페 필로소피아는 프랑스 18세기의 살롱과 '실용주의' 저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운영했던 형이상학 클럽,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덴크 바(Denk Bar)를 모델로 한다. 이곳들은 모두 사람들이 모여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사랑방과 같은 공간들이다.

올해는 '서양철학산책'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지고 있다.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프로그램 '인문학 Sale(향해)'를 통해서 철학 뿐만 아니라 역사, 문학, 종교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있다. 인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선도국가 구현을 위한 학술정책 수립' 국회 토론회



인문사회 분야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제시됐다. 6월 24일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실 주최로 '선도국가 구현을 위한 학술정책 수립'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류재한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인사총) 공동회장(불어 불문학과 교수)은 '인문사회 분야 법령 정비의 당위성' 발표를 통해 "인문사회 분야 관련 연구 및 교육의 구성과 방향성을 연구자와 교육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 공동회장은 인문사회 분야 관련 법령의 문제점으로 △인문사회분야를 특정한 법령 전무와 제도의 불비(不備) △교육 및 기타 유관법률에서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규정 미흡 △구체적 방향설정에 대한 총론·각론 부재 △정책의 수립, 지원 및 관리를 책임질 강력한 컨트롤타워 부재 △집행 체계의 혼선: 주무부처 불명확을 제시했다.

류 공동회장은 대안으로서 올해 3월 24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학술기본법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국제적 변화와 과학기술의 한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한 기초학술 진흥의 근간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학술진흥을 위해 배정하고, 기초학술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고 있다. 류 공동회장은 정책수립 및 집행을 체계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인문대학 1호관 냉·난방기 전면 교체

〈전남대학교 공간 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인문대학 1호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7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됐다.

1호관에는 교양·전공강의실이 집중되어 있고 교수연구실 및 각종 연구소, 학생공간 등이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2005년 설치 이후 15년이 경과된 냉·난방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작동 중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업 운영 및 연구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었다.

이번 공사로, 1호관 총 57개실 중 54개실 69대를 GHP(가스형)시스템에서 EHP시스템(전기형)으로 교체했다. 이와 같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원활한 수업 운영 및 연구 활동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교직원 동정

## 검 무

## 본부

- 국어국문학과 교수 표인주  
인문대학 학장 (2021. 2. 1. ~ 2023. 1. 31.)
- 불어불문학과 부교수 민진영  
인문대학 부학장 / 교원양성위원회 위원  
(2021. 3. 1. ~ 2023. 2. 28.)
- 사학과 부교수 이성원  
전남대학교 미래위원회 상임위원 (2021. 1. 27. ~ 2023. 1. 26.)
- 사학과 교수 김병인  
전남대학교 미래위원회 위원 (2021. 1. 28. ~ 2023. 1. 27.)
- 철학과 교수 박구용  
대학원혁신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위원  
(2021. 1. 20. ~ 2023. 1. 19.)
- 국어국문학과 교수 표인주
-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김연민
- 철학과 교수 박구용  
BK21사업 교육연구단장 협의회 위원  
(BK21사업 교육연구단장 보직 재임 기간내)
-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해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 (2021. 2. 1. ~ 2023. 1. 31.)
-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이희경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2021. 3. 1. ~ 2023. 2. 28.)
-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임지영  
학생징계위원회 위원 (2021. 3. 1. ~ 2023. 2. 28.)
- 철학과 교수 정미라  
교수사정관 (2021. 3. 1. ~ 2022. 2. 28.)
- 불어불문학과 교수 김태훈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 위원  
(2021. 3. 29. ~ 2023. 3. 28.)
- 철학과 교수 김양현  
HK인사위원회 위원 (2021. 3. 1. ~ 2023. 2. 28.)
- 국어국문학과 교수 백현미  
HK인사위원회 위원 (2021. 5. 1. ~ 2023. 4. 30.)
- 불어불문학과 부교수 민진영  
자유학기운영위원회 위원 (2021. 5. 1. ~ 2023. 4. 30.)
- 불어불문학과 부교수 이수원  
교양교육위원회 위원 (2021. 7. 1. ~ 2023. 6. 30.)

## 부속시설

- 중어중문학과 교수 오만중
-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대현
- 사학과 부교수 이성원
-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한익송  
도서관 고서전문위원회 위원 (2021. 2. 3. ~ 2023. 2. 2.)
- 사학과 교수 박상철  
역사문화연구센터장 (2021. 3. 1. ~ 2023. 2. 28.)
- 불어불문학과 교수 김태훈  
프랑스문화·지역학연구소장 (2021. 3. 1. ~ 2023. 2. 28.)
-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이주리  
영미문화연구소장 (2021. 3. 1. ~ 2023. 2. 28.)
- 중어중문학과 교수 이주노
- 철학과 교수 김양현
- 호남학연구원 부교수 최유준  
문화전문대학원위원회 위원 (2021. 7. 18. ~ 2023. 7. 17.)
-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이희경
- 인문학연구원 조교수 류도향
- 호남학연구원 부교수 최유준  
신문방송사 운영위원회 위원 (2021. 4. 1. ~ 2023. 3. 31.)
- 불어불문학과 부교수 민진영  
유라시아연구소장 (2021. 4. 22. ~ 2023. 4. 21.)

## 학과장 / 주임교수

-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조경순  
한국어교육학협동과정 주임교수 (2021. 3. 1. ~ 2023. 2. 28.)
- 사학과 부교수 이성원  
자율전공학부 책임지도교수 (2021. 3. 1. ~ 2023. 2. 28.)
- 불어불문학과 교수 김태훈  
불어불문학과 학과장 / 불어불문학과 주임교수  
(2021. 3. 1. ~ 2023. 2. 28.)

## 정년· 명예퇴직 2021. 2. 28일자

- 불어불문학과 교수 강성영
- 불어불문학과 교수 심을식
- 독일언어문학과 교수 송경안
- 철학과 교수 노양진

## 연구년

- 국어국문학과 교수 손희하 (2021. 9. 1. ~ 2022. 2. 28.)
- 독일언어문학과 교수 김홍섭 (2021. 9. 1. ~ 2022. 8. 31.)

## 신임교수 인사



김창수  
사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사학과에 임용된 김창수입니다. 3월 1일에 연구실 이사를 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2016년 「19세기 조선·청 관계와 사신외교」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조선왕조실록의 교열, 단국대 HK+사업단에서 ‘지식권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의 학위논문은 두 나라 사이에서 형성된 국제관계, 서로에 대한 인식, 갈등과 교류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의 조선-청 관계 연구가 정치적 사건이나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장기적인 구조의 지속과 그것이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중국은 조선시대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2000년대 이후 다시금 중국과의 관계가 부상하면서 저의 공부와 현재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용된 것만으로도 매우 기뻐는데, 전남대 사학과가 전국 사학과 중에서 매우 큰 규모이며, 한국사를 비롯해 동양사 서양사 선생님들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보편적 시각을 가지고 저의 연구를 확장해 나가는 데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나아가 호남 지역은 제 전공인 조선시대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는 역사적 자산들이 풍부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조선시대 호남 지역 연구의 공백을 메우려는 포부를 가졌습니다.

또한, 한 학기 동안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수준 높은 토론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몇몇 학생들과 진로를 상담하면서, 앞으로 전남대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더 성장시킬 수 있을지, 직업이라는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맹자는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 중 하나로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을 말했지만 저 같은 범인으로서 인재들을 마주하고서 오히려 교수자의 역량을 돌이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개월간 광주의 맛있는 음식들을 매일 같이 맛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사학과 선생님들이 소개해주신 식당들은 언제나 풍미가 있는 곳들뿐이었습니다. 주말에 아내에게 잘 못 챙겨 먹는 척 티를 내는 것도 나름 고역이라면 고역이었습니다. 아직 광주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지만 음식을 통해 광주의 높은 수준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사학과 및 인문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배려를 다음 신임교수에게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과 및 협동과정

## 국어국문학과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국어국문학과(학과장 백승주 교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이 1월 28일 ZOOM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학과 신입생들에게 학사정보 및 학과 주도 프로그램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행사를 통해 구성원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대학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전반적인 대학·학과 생활 안내 및 국어국문학 전공에 대한 내용과 수강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신입생 간 소개, 퀴즈 게임, 취업·진로설계·자계부 특강 등을 진행했다.

## 〈새날열기〉 개최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의 전년도 사업 결산 및 이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새날열기〉가 4월 2일 개최됐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길놀이 판’을 시작으로, 본 행사는 인문대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선후배가 함께 어울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개강을 축하하면서 학과 구성원간 친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 제1차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발표회

국어국문학과 제1차 대학원 논문발표회가 4월 22일 개최됐다. 이번 발표회는 학위청구논문 본 발표회로서, 석사과정 7명(고전문학 2명, 현대문학 2명, 국어학 3명)의 연구자가 각각 분야별 발표를 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ZOOM으로 개최했지만, 국어국문학과 교수 및 강사, 대학원생들이 참여해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 교수-선배-동기와의 면담 실시

학과에서는 20학번, 21학번을 대상으로 1학기 동안 교수, 선배와의 면담을 실시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기획된 이번 면담은 교수 1인에 학생 7~8명으로 구성됐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면담을 통해 교수-학생 간 친밀감 형성 및 전공과 진로의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 영어영문학과

## 전문가 초청 특강



영어영문학과(학과장 김연민 교수)는 소속 재학생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새로운 분야를 접할 수 있는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해 진로 및 취업의 스펙트럼 확장을 도모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한국지부 대표가 ‘인권운동가, 인권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특강을 통해 영어영문학과 재학생들로 하여금 시대정신 고양 및 의식 수준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특강 중 전공분야와 접목시켜 취업으로 발전 가능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조언을 구했다.

## #save Myanmar 프로젝트 개최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에서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응원하고자 ‘#save Myanmar’ 프로젝트를 기획해 활동했다.

학생회와 영어권 문화기억 큐레이터 양성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 함께 진행한 본 프로젝트는 스터디모임, 특강 및 성금모금 등의 활동으로 구성됐는데, 그 중 교내 미얀마 학생과의 간담회와 인권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해 미얀마 현지 인권상황에 대해 듣고 연대 방안을 실질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학생회는 학과 교수진이 마련한 기부금을 활용해 미얀마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담은 물품을 직접 기획, 주문 제작하여 판매했다. 수익금은 총 324만6천원으로 전액을 5·18재단에 기탁해 미얀마의 정세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기관을 후원하기로 했다.

## 독일언어문학과

### 독일어 능력(B1) 자격증 취득반 운영

독일언어문학과(학과장 정명순 교수)는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준비를 위해 독일어 능력 B1자격증 취득을 위한 집중반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언어문학과 재학생 및 부북수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매주 2회 월·수요일 독일 원어민 강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며, 6월 말에 B1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다.

### 1학기 선배초청 대학생활 듣기

독일언어문학과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특강을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Zoom을 이용해 독일 있는 선배들도 만날 수 있었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 독일 바이로이트 대학원 재학 중인 선배와 만남
  - 내용 : 독일 전공 학습 총질과 대학원 진학
  - 일시 및 강사 : 4월 14일, 김예진 졸업선배
- 2) 독일 교환학생 파견
  - 내용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1년간 독일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 재학생으로 부터 해외교류 파견을 위한 준비와 수업 그리고 다양한 경험 등
  - 일시 및 강사 : 4월 28일, 조유리 재학생
- 3) 졸업 선배 취업 특강
  - 내용 : 국립아시아문화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졸업 선배로부터 대학생 활과 도전장학생, 국내외인턴십 경험, 취업준비 과정 등을 듣고 서로 질문하는 시간을 갖음
  - 일시 및 강사 : 5월 12일, 오지현 졸업선배

## 불어불문학과

### 2021학년도 역량강화 오리엔테이션 실시

불어불문학과(학과장 김태훈 교수)는 3월 12일 불어불문학과 신입생, 편입생 및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역량강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들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학생들은 불어불문학과 교수진 및 학생회, 취업·진로 프로그램, 학사일정, 전공학습 프로그램 등에 대해 안내받았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학우들 간 교류를 갖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과 교수들의 전공 설명과 진로 설계 시간을 통해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계획, 자신의 진로는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신입생들과 재학생, 편입생들에게 전공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 및 선배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경보환경 박소민 대표이사, 장학금 기부



(주)경보환경 박소민 대표이사가 불어불문학과 학생들을 위해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으며, 5월 6일에 4명의 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증정했다.

박소민 대표이사는 “학업과 취업 준비에 치진 전남대 학생들에게 이 장학금이 격려와 응원이 되길 바란다”며 “전공인 프랑스어 공부에 매진해 국제적 역량을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 대표로 마선제 학생은 “전공 공부와 학과 활동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하는데 있어 이런 격려가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해외 취업 특강 운영



학과에서는 링크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프랑스에서 취업하여 살아가기’라는 제목의 특강을 마련했다.

5월 27일 비대면으로 이뤄진 이번 특강은 우리 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비즈니스 스쿨을 마친 후, 현재 프랑스 릴(Lille)의 'ADEO'회사에 근무 중인 정어진(31세) 씨를 강사로 초청했다.

이 특강에서 정어진 강사는 재학 시절 학습 방법, 프랑스 교환 학생의 경험, 프랑스 유학과 취업 준비 과정 그리고 현재 프랑스 회사에서의 생활 등을 진솔하고 생생하게 알려줬다.

이 특강을 들은 학생들 중 조유희 학생(3학년)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선배의 직접적인 경험을 듣게 되어 매우 좋았다”며 “해외 취업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 중어중문학과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중어중문학과(학과장 서보여 교수)는 2월 5일 '신입생 길라잡이' 행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입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강신청, 학사 일정 등 대학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하며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새 학기 시작 전 처음으로 모인 이번 자리는 비록 비대면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전공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선배, 동기들과 만나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학과에서는 비대면 수업에 적응해야 하는 신입생들을 위해 1학기 동안 조별 교수 면담(대면 또는 비대면)을 실시해 대학 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 석·박사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회 실시

학과는 6월 11일 2020학년도 후기 석·박사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논문공개발표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ZOOM을 통한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학과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석사과정 이세라(한·중 색채어의 관용표현 대조 연구-黑, 白, 紅을 중심으로), 박사과정 이수진(陶淵明 主要爭點 研究) 총 2명의 대학원생 논문을 발표했다.

발표 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각각의 논문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다.

## 일어일문학과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어일문학과(학과장 김성은 교수)는 2월 4일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ZOOM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신입생 뿐 아니라 20학번 학생들도 참여한 가운데 일어일문학과 및 전남대학교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 일어일문학과 선배초청 특강 개최

학과에서는 5월 12일 ZOOM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취업 선배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 주제는 '공무원 합격수기'로, 강연자로는 2019년에 국가교정직과 지방세무직에 합격한 후 현재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세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 문지영 씨를 초청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 생활 및 공시준비 과정으로, 학생들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과정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사학과

## 〈사학과 장학금〉 전달식 개최

사학과(학과장 이성원 교수)는 5월 14일 '사학과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학과 장학금'은 이상식 명예교수가 기탁한 '이상식 장학금'과 최영태 명예교수가 기탁한 '최영태 장학금'으로 이뤄졌다.



'이상식 장학금'은 2003년에 정년퇴임한 이상식 명예교수가 후학양성을 위해 기탁한 기금으로써, 사학과에서는 그 뜻을 기려 학부 학생(3학년, 성적우수자)과 대학원 박사과정생(한국사 전공, 성적우수자) 각각 한 명에게 매해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이상식 장학생으로는 김도우(3학년)과 오수영(한국사 박사과정)이 선발됐다.

'최영태 장학금'은 2020년에 정년퇴임한 최영태 명예교수가 학생회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기탁한 기금으로써, 사학과에서는 그 뜻을 받들어 올해 처음으로 학생회 구성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이상식 명예교수, 학과장, 장학생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였다. 특히, 전달식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축하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 졸업논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회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및 학부 졸업논문 공개발표회를 각각 5월 21일과 5월 28일 개최했다.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발표회에서는 박사학위청구자 1명이 발표했으며, 약 1시간에 걸쳐 우수한 발표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학부 졸업논문 공개발표회에서는 발표자 12명이 전필 수업을 통해 작성한 논문 초고를 다듬어 발표를 진행했다.

사학과는 졸업논문 발표·제출을 학부 졸업규정으로 운영해 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학부 졸업생들도 자신의 전공지식을 논문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문 공개발표회는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온라인상에서 열띤 발표와 토론의 장을 열었다.

## 정기역사답사 대체 '개별 답사 인증제' 시행

사학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2021년 춘계 정기역사답사를 대체하기 위해 '개별 답사 인증제'를 시행했다. 사학과 졸업요건에는 '답사 일정 횟수 참여'가 포함되어 있으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과 정기답사를 '개별 답사 인증제'로 대체하기로 했다.

'개별 답사 인증제'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역사 유적지, 사적지, 박물관 등 역사 관련 장소를 개별 답사한 뒤 답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학과는 그 보고서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개별 답사 인증제'는 작년 2020학년도 1학기에 처음 시도했으며, 약 80여 명의 학생이 개별 답사를 진행해 답사 참가횟수를 인정받았다.

## 철학과

## 창업 준비팀 '우주먼지' 철학잡지 『현대』 1호 출간



철학과(학과장 조윤희 교수)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창업 준비팀인 '우주먼지'가 철학잡지 『현대』 1호 '공간-장소'를 출간했다. '우주먼지'는 스스로의 언어로 글을 쓰며 서로의 고민과 생각을 연결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모임을 시작했다.

『현대』 1호 '공간-장소'는 광주, 철학, 에세이, 인터뷰, 비평 파트로 구성돼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라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 '공간-장소'에 대한 철학 에세이, 철학자들의 논의를 담았다. 또한 다양한 필진들이 저마다의 공간이라는 개념과 의미를 담아 쓴 글이 에세이, 비평, 인터뷰의 형식으로 묶여 있다.

최연, 김남수, 김도훈, 김민서, 구가연, 박선주(이상 철학과), 최정연(심리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우주먼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꺼내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현대』 0.1호 '편지'를 창간호로 출간한 바 있다.

## 졸업논문 보조 지도 프로그램 운영

철학과는 PILOT사업 일환으로 논증적·비판적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졸업논문 보조지도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대학원생을 논문 보조 멘토로 지정하고 논문에 대한 세밀한 지도를 통해 학부생 논문의 질적 향상시키고 학생이 졸업논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학기에는 5명의 대학원생이 5명의 학부생을 보조 지도하고 있다.

## [PILOT사업] 전공 언어 능력 향상 지원

철학과는 5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언어 능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언어(독일어·영어)를 선정, 관련 외국어 박사과정생의 지도하에 8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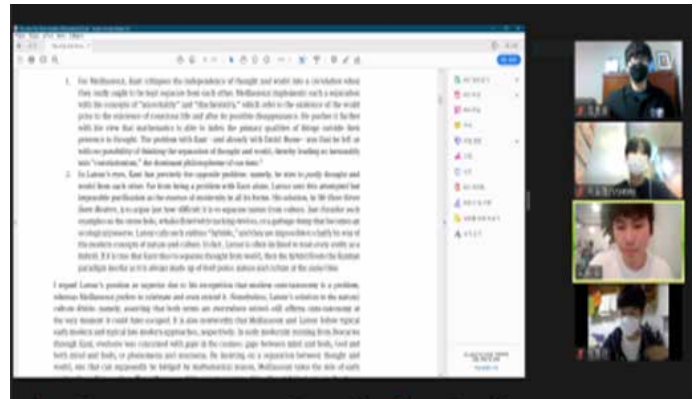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은 전공 외국어 학습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1학기에는 기초반, 2학기에는 중급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JOB 로드맵] 학생취업활동을 위한 응시료 지원

철학과는 철학과 학부생의 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Job로드맵 응시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본 사업은 철학과 재학생에 한해 3월부터 8월 중으로 취득한 각종 어학 및 자격증에 대한 시험 응시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 [PILOT사업] '전공세미나' 운영



철학과는 5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동안 전공세미나를 운영했다. 전공세미나는 학과 내 학술연구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대학(원)생의 전공 역량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디지털 철학에 대한 학습한 '현대철학연구' 등 3개 모둠 총 13명이 참여해 온라인 학술연구모임을 진행하였다.

## 대학(원)생 학위논문 공개발표회

철학과는 4월 30일 일반대학원 철학과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김은주(박사과정, 지도교수:이강서, '플라톤 '제7서한'에서 철학적 대화, 통찰, 그리고 글쓰기.) 등 박사과정생 2명이 발표했다.

또한 학과는 5월 28일 온라인 학부 졸업논문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김민주(지도교수:정미라, 현대 한국 사회의 혐오표현:밀의 자유론을 중심으로) 외 4명의 학생이 발표했다. 대상 학생들은 지도교수님의 지도하에 논문 계획서 및 개요서 제출, 공개발표회 발표, 소프트본 제출로 철학과 전공영역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한국어교육학협동과정

## 2021학년도 학위청구 논문발표회

한국어교육학협동과정(주임교수 조경순, 국어국문학과 교수)에서는 4월 23일 ZOOM 화상회의를 통해 논문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학위청구논문 발표회로서, 석사과정 5명(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명, 한국어학 3명)의 연구자가 각각의 분야별 발표를 했다.

기존에 대면으로 실시하던 논문 발표회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7명의 협동과정 교수진과 22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논문 작성에 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 연구소

## 아시아문화연구소

## 양계초 주제로 세 번째 콜로키움 개최

아시아문화연구소(소장 양희석, 중어중문학과 교수)는 2월 24일 중국 근대화의 선구적 사상가였던 양계초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 이해경 교수를 초청해 「양계초의 문명 대응과 신민의 굴절」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세 번째 콜로키움이다.

양계초의 저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글로 꼽히는 〈신민설〉을 통해 그가 어떤 관점으로 세계와 시대의 변화를 인식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사상적 변화는 무엇이었는지를 다뤘다.

## 영미문화연구소

## 봄 학술회 21세기영어영문학회와 공동주최



영미문화연구소(소장 이주리,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21세기 영어영문학회(회장 노승희, 영어영문학과 교수)와 3월 20일 봄 학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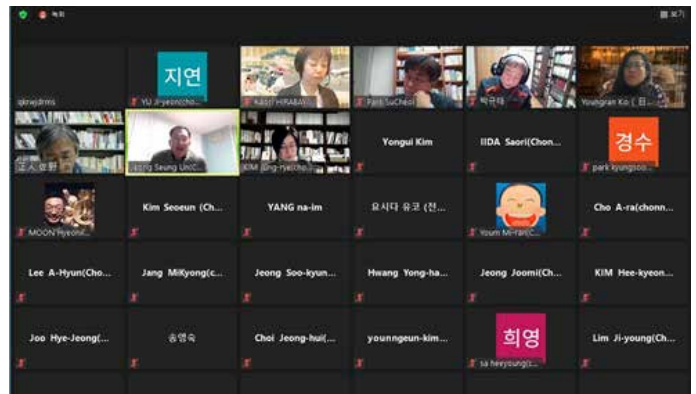
학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줌(ZOOM)화상회의로 열렸으며, 영문학과 영어학·영어교육 두 분과로 진행됐다.

이날 학술회는 '다이아나 손의 「위성들」-혼종의 다문화 사회를 위한 모빌리티와 헤테로토피아적 극 공간'(박보영, 전남대), '케이 애즈해드의 「보거스 우먼」: 난민의 몸에 기록된 트라우마의 기억과 모노폴리로그'(임은하, 전남대) 등 21세기를 정의하는 시와 트라우마, 다문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이뤄졌다.

한편, 두 차례의 기조강연도 이루어졌다. 영어학에서는 경희대 김종복 교수가 'What Can We Learn from Big Data (Corpora) in Understanding English?'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영문학에서는 건국대 김종갑 교수가 '인공지능 문학: 문학과 텍스트, 작가와 작가 기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 일본문화연구센터

##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일본문화연구센터(센터장 정승운, 일어일문학과 교수) 주최, 일어일문학과 주관으로 1월 19일 국제학술심포지엄 '동아시아 속에서 생각하는 한일 관계2(韓日關係を東アジアの中で考える2)'를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ZOOM 프로그램을 사용해 온라인 심포지엄으로 진행했다.

## 국제학술대회 개최

동아시아일본학회(회장 김용의 교수) 주최,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일본문화연구센터, 문화유산연구소 주관 및 일본국제교류기금 후원으로 2021년 춘계국제학술대회(온·오프라인 동시)가 5월 29일 김남주기념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 게이오대학 노무라 신이치(野村伸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필두로, 동아시아 4개국(한·중·일·대만)의 일본 연구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토론 등에 참여했다.

## 한국어문학연구소

## 「어문논총」 39호 발간

한국어문학연구소(소장 김동근,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등재후보지인 「어문논총」을 연 2회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말에 「어문논총」 38호를 발간했으며, 8월 말에는 「어문논총」 39호를 발간했다.

더불어 한국어문학연구소는 전남대학교 BK21 FOUR 교육연구단(단장 표인주, 국어국문학과 교수) 및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학과장 백승주,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KOR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교육-연구-사회 환원'의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철학연구교육센터

## ‘호남유학의 흐름과 특징’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철학연구교육센터(센터장 양순자, 철학과 교수)의 근대호남유학연구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팀은 3월 5일 ‘호남유학의 흐름과 특징’을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인문대 교수회의실에서 소규모 인원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호남유학에 대한 역사학계의 관심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와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 호남학당 열린고전강좌 2학기 공동주관



철학연구교육센터는 전남대학교 호남학과, 호남학연구원, HK+ 감성인문학연구단과 4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6주간 진행되는 호남학당 열린고전강좌 2기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기수 강좌의 주제는 ‘논어맹자 정독: 감(感)과 응(應)을 새기다’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다.

## ‘노사학과 문인들의 삶과 사유’ 학술대회 개최

철학연구교육센터는 사단법인 노사학 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4월 30일 ‘노사학과 문인들의 삶과 사유: 직전 제자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노사 및 노사의 직전 제자들의 사상 정리와 노사 재전 제자 및 삼전 제자 연구를 위한 사전 작업의 토대를 이룬 이번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한국 성리학과 노사학파에 관심 있는 누구나 링크접속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철학연구교육센터 근대호남유학연구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팀은 2019년부터 노사학파에 대한 기초자료 정리, 주요인물 조사, 논쟁 자료집 편찬, 문화유산 실태조사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프랑스문화·지역학연구소

## 프랑스문화·지역학연구 학술지 발행

프랑스문화지역학연구소(소장 김태훈, 불어불문학과 교수)는 연구소 발행 학술지 「프랑스문화·지역학연구 Revue d'Études Culturelles et Régionales Françaises」 제4호를 1월 1일에 발행했다.

프랑스 문화유산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문학, 언어와 관련된 5편의 다양한 연구들이 동학술지를 통해 발표됐다.

## 호남학연구원

## 제4차 로컬리티 콜로키움 개최

호남학연구원(원장 이성원, 사학과 교수) HK+2 감성인문학연구단은 〈분권 시대 횡단적 보편학으로서 감성인문학: 장소·매체·서사〉라는 아젠다 연구의 일환으로 ‘제4차 로컬리티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엘로우 퍼시픽: 다중적 근대성과 동아시아』(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의 공저자인 조영현 교수(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초청해,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 및 근대성 문제를 ‘대운하시대(1415~1784) 중국은 왜 해양진출을 주저했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서구중심주의 시각 및 그 자장에서 발화된 여러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현지인의 위치와 관점에서 동아시아 근대 경험을 재해석하고, 더 나아가 수평적 연대와 혼종성에 기초한 횡단근대성에 대한 인식 및 서사 가능성을 타진했다.

## 인문마을 프로젝트 진행

호남학연구원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 모임을 유도해 인문학적 관점에서 일상적 삶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성찰과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인문마을 프로젝트를 신안동과 월곡2동, 그리고 비야동에서 각각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뉴이벤트미디어(변선화 대표)와 협력해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온라인 모임을 병행한다.

신안동 노아온인문마을에서는 〈제1막: 나의 마을을 더 깊고 넓게 알아가기〉와 〈제2막: 감성의 창에서 커뮤니케이션하기〉를 목표로, 마을 곳곳의 장소를 역사적 관점과 서사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마을과 자기의 관계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이해를 묻고 되짚어 보면서 미래의 마을을 상상해본다.

월곡2동 고려인인문마을에서는 〈기억의 지도 만들기〉를 주제로 월곡2동과 그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기억을 수집해나가면서 마을을 단순한 거주 공간 다층적인 가치를 엮어내고 창조하는 장소로 재구성한다.

비야동 까망인문마을에서는 〈제1막. 가족과 이웃: 소중한 사람들과의 눈맞춤〉과 〈제2막. 나의 역사: 지나온 장소와 사람에 대한 기록〉을 주제로, 주변의 가까운 부모, 자식, 가족 그리고 친구, 이웃, 반려동물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함께 하는 삶의 의미를 성찰하면서 새로움을 추구하게 된다.

##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지역어문학기반 창의융합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단

## 2021년 1학기 교육연구단 오리엔테이션 실시



지역어문학기반 창의융합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단(단장 표인주 교수)은 3월 19일 인문대학 소강당에서 1학기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본 행사는 2차년도 교육연구단의 첫걸음을 내딛는 행사로 구성원들은 교육연구단의 향후 학술 활동 계획과 프로그램 안내, c-lab 활동 계획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1회 교육연구단 콜로키움 개최



교육연구단은 4월 16일 제1회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콜로키움은 강영란 연구자의 '영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논설문에 나타난 메타담화표지 사용 양상'(토론:언어교육원 김해미 박사)와 강성주 연구자의 '유배시조에 나타난 북의 양상과 의미'(토론:기초교육원 김미선 박사)의 발표로 진행됐다.

이후 연구자들의 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토론 외에도 대학원생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 제1회 창의융합클래스 개최

연구단은 4월 30일과 5월 1일, 제1회 창의융합클래스를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강연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바로 박사를 강연자로 초청해 전통적인 XML, RDB를 살펴보고,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포맷인 RDF, labeled data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제1회 공공실천 클래스 개최

연구단은 5월 21일 제1회 공공실천 클래스를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강연에서는 원광대학교 융합교육대학의 김정배 교수를 강연자로 초청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역어문학 혹은 인문학 전공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전공 지식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실천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대학 환경 속에서 삶의 재미와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독립생활자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공유했다.

## FOUR 교육연구단-광주문화재단 협약 체결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등으로 구성된 KOR 컨소시엄은 4월 28일 광주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의 기록과 보존, 지역 문화 프로그램과 문화연구 공동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OR 컨소시엄과 광주문화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문화자산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협력, 지역 관련 문화·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양 기관의 업무 자원 공유 및 협업 네트워크 구축, 지역 문화 관련 공동 연구 및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지역 사회 공헌 방안 공동 모색 및 연계 활동 추진, 지역 언어문화 조사·기록·출판 등 지역학 진흥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FOUR 교육연구단 - 비움박물관 업무 협약 체결

KOR컨소시엄은 5월 6일 비움박물관과 지역 교류사업 및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OR컨소시엄과 비움박물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 연계 문화·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각 기관의 업무 자원과 노하우 공유 및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 전통문화 기반의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사업 교류와 홍보 협력, 현장 파견을 통한 실무 능력 배양 기회 지원 및 협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영어영문학과 4단계 BK21 영어권 문화기억 큐레이터 양성 교육연구단

## 월례 학술 행사

영어권 문화기억 큐레이터 양성 교육연구단(단장 김연민 교수)은 문화기억 교육 연구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실시했다.

## 문화이론 정기 세미나 : 21세기 영어영문학회와 공동 주최

- 3월 27일 박미선(한신대학교) 신자유주의시대의 감정
- 4월 24일 박미선(한신대학교) 페미니즘과 교차성 이론
- 5월 29일 윤조원(고려대학교) 젠더 트러블과 권력발화
- 6월 26일 윤조원(고려대학교) 쿼어 바디와 남성성

## 연구방법론 정기 세미나 : 한국응용언어학회와 공동 주최

- 3월 27일 남호성(고려대학교) 코딩을 전혀 모르는 연구자를 위한 ‘오렌지로 배워 보는 데이터 마이닝’
- 4월 23일 박유정(성균관대학교) 질적 연구 논문작성법
- 5월 29일 유현조(서울대학교) 응용언어학연구를 위한 통계 분석 기초
- 6월 26일 윤홍옥(제주대학교) 언어 실험 데이터 분석 방법론
- 8월 21일 정세훈(경성대학교) 언어처리기반 SLA 연구에서의 Eye-tracking 연구방법론 활용방안 소개

## 영화연구 세미나: 영미문화연구소 공동 주최

- 4월 9일 스파이크 리(Spike Lee)의 <똑바로 살아라>(Do the right thing)
- 5월 14일 에바 두버네이(Ava DuVernay)의 <미국 수정헌법 13조>(13th)
- 6월 11일 조던 필(Jordan Peele)의 <겟아웃>(Get out)

## 문화기억 이론 정기 세미나: 문영희(본 교육연구단 학술연구교수)

- 4월 22일 문화기억과 서양문명
- 5월 13일 미셸 푸코 「성의 역사」
- 6월 10일 미셸 푸코 「성의 역사」

## 하계 방학 블록 세미나

영어권 문화기억 큐레이터 양성 교육연구단은 하계 방학 동안 대학원생 연구의 이론적 틀을 확보하고 학문적 접근을 심화하기 위해 해외 및 국내 학자를 초청해 블록 세미나를 진행했다.

- 7월 해외학자 초청 세미나: Emily Ridge (NUI Galway)
- 8월 통계방법론 세미나: 이준규 교수(한국외대)

## 비교과 실습 프로그램 진행

영어권 문화기억 큐레이터 양성 교육연구단은 대학원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산학연계 활동을 진행했다.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했던 아래의 참여형 워크숍들이 문화기억 분야 학문 후속 세대를 큐레이팅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창의문화 워크숍] GB 아트스쿨(광주비엔날레) 참여



GB아트스쿨은 현대미술에서 제기되는 이슈에 관심 있는 영어영문학과 학부생과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광주의 역사성과 인간 지성의 영역을 살피는 예술 및 과학적 접근에 주안점을 두고 전 작가, 큐레이터, 학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기회와 전시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본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온라인 참여형 강의 중심의 세션 1과 전 지구적 사회운동 실현 현장을 답사하는 세션 2로 나누어 진행했다.

## [창의문화 워크숍] 공감본능 현장답사(ACC) 참여

공감본능 전시 현장답사는 광주의 역사와 공동의 트라우마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이 참여했다.

독립 큐레이터 단체 오버랩의 김선영 대표의 큐레이션과 함께 전시에 대한 융합적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창의문화 워크숍] 영상 콘텐츠 제작교육 진행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 공감미디어와 협업해 증강/가상현실 분야를 접목하는 융합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 위탁 교육을 진행했다.

본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산학연계 활동으로 동영상 제작의 기초와 실습부터 편집 심화 기술, 그리고 3D 소스를 활용한 최종 결과물 제작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 [5·18 자료 영문 번역 프로젝트] &lt;버스정류장&gt; 착수

본 교육연구단은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와 사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본 프로젝트는 지난 1월 영문 번역 전문가 초청 특강(한국외대 한승희 특임교수)을 시작으로 4월부터는 대학원생들의 본격적인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대학원생들이 5·18 관련 풀뿌리 기억 사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학술도서로 출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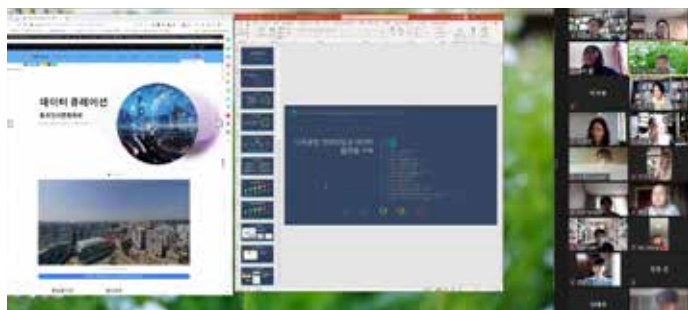
## 철학과 4단계 BK21 철학큐레이팅 전문인력양성 교육연구단

철학큐레이팅 전문인력양성  
교육연구단 참여인력 모집

철학큐레이팅 전문인력양성 교육연구단(단장 박구용 교수)은 4월 1일 2차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대학원생을 모집했다.

2021년 2차년도 1학기 사업에 대학원생 22명(학석사연계과정 2명, 석사과정 5명, 석박사통합과정 1명, 박사과정 14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전문가 초청강연



교육연구단은 7월 13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대학 중국언문문화학부 박정원 교수를 초청한 가운데 온라인 ZOOM을 통해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했다. 주제는 인문융합 큐레이팅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며,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들에게 디지털 및 큐레이팅 연구 방법을 안내했다.

## 참여대학원생 연구논문 주제 발표회 개최

교육연구단은 7월 16일 참여대학원생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논문 주제 발표회를 온라인 ZOOM을 통해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교육연구단의 2021년 상반기 사업실적 및 하반기 사업 계획을 안내하고, 연구논문작성법과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등을 발표회에 앞서 교육했다.

본 발표회에서는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이 참석해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논문 발표 및 그에 대해 지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참여대학원생 영어 리서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연구단은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본교 영어교육학과 정윤희 박사를 초청해 참여대학원생의 영어 연구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리서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주제를 포스터 발표문으로 작성하고 영어로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화 역량 제고의 성과를 거뒀다.



##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  
차단계 진입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철학과 교수)은 6월 11일 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에서 차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인문학연구원이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은 1단계 3년 수행 후 단계평가를 거친 후 2단계 4년을 진행하게 되는 3+4년 사업으로 1단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2단계 사업을 연속으로 수행하게 됐다. 2단계는 2021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수행한다.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 연구단은 한국 가족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진단과 성찰, 비판적 대안 모색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갈 것이며 가족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지평 모색을 시도할 예정이다.

함께하는 인문학  
〈문화·예술 속 가족〉 개최

인문학연구원 산하 지역인문학센터에서는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함께하는 인문학 〈문화·예술 속 가족〉 강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6일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를 시작으로 6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류재한(불어불문학과 교수), 오승진(광주여대 상담심리학과) 연사를 모시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들 속에서 드러나는 가족의 형태와 복합적인 의미들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문학연구원  
제16차 콜로키움 개최

인문학연구원은 5월 28일 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교수(대구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를 모시고 온라인 ZOOM으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의 변화: 공동체와 개인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정옥 교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내면서 정책으로 제안하고 만들었던 다양한 체계들을 제시하고, 한국사회에서 가족 형태의 변화를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인문학연구원-한국가족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인문학연구원은 2021년 6월 5일 한국가족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와 가족'이라는 주제로 5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온라인 ZOOM으로 운영됐다.

〈세션5〉 가족실천과 가족커뮤니티에서는 인문학연구원의 추주희, 오영은 HK연구교수가 발제를 맡아 각각 「지역에서의 가족실천은 보수적인가?」, 「한국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우울 변화궤적의 군집분석」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 제17차 콜로키움 개최

인문학연구원은 6월 25일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소장 이영배 교수를 모시고 온라인 ZOOM으로 '공동체 문화 실천의 동인과 대안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영배 소장은 민속학적 관점에서 공동체문화를 접근했는데, 단순히 현상의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라는 시

간과 한국이라는 공간이 지니고 있는 시공적 문제를 관통하면서 그 대안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나아가 한국의 공동체 문제가 특수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전통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관점에서 문제와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론적 정합성을 제시했다.



## 취업

## 1학기 인문대 취업교과목『생애와 직업탐색』운영

인문대학은 취업교과목『생애와 직업탐색』을 개설해 학생들의 취업준비를 교과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과목은 2·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소개서 작성법 스킬과 같은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e클래스를 통해 온라인(녹화영상) 방식으로 진행해 80여 명의 학생이 수강했으며 수강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e클래스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과 수강생의 일대일 상담 방법을 적극 활용했다. 교과 내용은 채용동향, 직무기업 분석, 자기소개서, NCS 및 필기전형, 면접 대비 스킬, 취업계획서 등 취업의 서류전형에서부터 마지막 면접까지를 포함한다. 본 교과목의 운영 전반은 인문대 취업지원실(인2-113)에서 담당하고 있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 1학기 취업/창업/문화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인문대학은 인문학 학생들의 진로방향에 맞는 동아리 팀을 구성해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인문학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더불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팀을 발굴코자 이 사업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4월 중에 참가학생을 모집해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했으며, 총 19개팀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체 채용전형을 준비하는 취업팀과 문화콘텐츠 유관 스터디 활동하는 문화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총 8차시 이상의 모임보고서를 제출한 후 활동비(30만원/1팀)를 총 2회에 걸쳐 지원받는다.

본 프로그램은 6월말까지 운영하고 7월 중 팀별 최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우수팀을 선발해 시상한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 1학기 인문 고전 콘텐츠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운영

인문대학은 인문학 학생들의 전공분야인 인문학 고전에 대한 학부생의 전공역량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영상콘텐츠 등의 기술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융복합적인 인문학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4월 중에 참가학생을 모집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였고 총 5개팀이 활동하고 있다. 활동팀의 주요 내용은 인문학 고전 스터디, 영상콘텐츠, 시나리오 제작 등이다. 팀별 총 8차시 이상의 모임보고서를 제출하며, 활동비(30만원/1팀)는 총 2회로 나눠 정산하여 지원한다.

본 사업은 6월말까지 운영하고 팀별 제출된 성과물을 토대로 우수팀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 및 문의사항은 인문대 취업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 2021 인문대 선배초청 취업멘토링 실시



인문대학은 학생들에게 취업한 선배가 재학생에게 취업멘토 역할을 하고 생생한 최신 취업정보를 제공하고자 취업멘토링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1학기에는 코끼리협동조합 PD(하일승)와 한국전력공사 신입사원(오민영) 동문을 초청해 공공기관 구직과정과 취업성공 노하우, 그리고 영상제작 및 편집에 대한 업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재학생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총 2회에 걸쳐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 멘토링에는 총 116명의 학생들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보였고, 현직자 동문의 대학생활과 구직과정에 서의 경험에 대해 가감없는 솔직한 경험과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멘토링에 참석한 학생들은 최근에 졸업한 취업선배의 멘토링이라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현실적인 조언과 상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 인문대 취업서포터즈 '인사이다' 운영

인문대학은 융합인재교육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취업서포터즈 '인사이다'를 운영하고 있다. '인사이다'는 사이다처럼 인문대 학생들의 취업 고민을 시원하게 뚫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3월 취업프로그램 및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자 학과별 1명씩 총 8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은 인사이다 인스타그램 계정, 학과별 단독방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학생 대상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온라인 계정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인사이다에서 제공하는 카드뉴스는 교내 장학금, 융합인재교육원 취업 프로그램, 기초교육원 프로그램,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월간지, 채용정보 월간지 등 교내외 다양한 진로·취업 정보를 내용으로 한다.

자세한 정보는 인스타그램에서 아이디 'insida\_supporter'를 검색하거나 팔로우를 누르면 된다.



## 인문대학 신간



### 경판방각본 현수문전 신해진 역주 보고서, 2021.1.

이 이본은 송나라 황제가 죽고 새 황제로 즉위한 태자가 간신의 말을 듣고 현수문의 둘째아들을 죽여 짓을 담가 보내어 대립하지만, 현수문과 그 아들이 끝까지 송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인물로 그려진 텍스트이다. 그렇지만 현수문이 아들의 죽음을 보고 일시적이거나 황제에 대해 분노하거나 제후왕이 된 이후 늙은 몸으로도 전투해야 하는 등 군신관계가 다른 영웅소설의 그것과는 달리 묘사되어 있다.

또한 송나라의 멸망을 방관하던 현수문, 원나라 태조를 도와 원나라의 개

국공신이 되는 현수문의 아들이 그려지던 필사본이나 구할자본의 〈현수문전〉과도 달리 묘사됐다. 또한 일반적으로 영웅소설에서 어느 정도 가난한 사위와 처가와와의 갈등 해결에 관심을 보인 것에 비해서, 경판방각본 〈현수문전〉은 외적에 의한 전란, 간신과 종실에 의한 반란 등 황제국의 유달리 많은 시련을 막아내는 현수문 부자의 활약에 중심을 둔 작품이다.

결국 경판방각본 〈현수문전〉은 왕조교체 서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왕조유지 서사를 보여주면서도 군신간의 절대적 결속을 보여주지 않는 이 본이라 하겠다.



### 실용대외한어교학어법 문유미 역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2.

이 책은 중국어 교학 및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게 될 교수자와 학자를 위해 집필한 책입니다. 또한 중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학부생 및 석사, 박사생을 위한 참고서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집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바로 ‘실용성’과 ‘상세화’입니다. 중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교수자들은 특히 아래 세 가지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중국어의 음운, 문자, 단어, 문법 교수의 주요 항목과 난점 및 교수 내용의 요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중요하게 파악해야 할 항목과 학습 중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학습자의 쉽고 정확한 학습을 위해 간결하지만 상세한 강의, 효과적인 연습의 과정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말모이, 다시 쓰는 우리말 사전 손희하 외 시공사, 2021.2.

100년 전 ‘말모이’의 정신을 오롯이 계승한 이 사전은 외국어, 외래어와 정체불명의 은어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이미 사라졌거나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전국의 옛말과 입말, 지역어들을 국민의 손으로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2019년 10월 7일부터 2020년 8월 6일까지 10개월간 말모이 누리집([HTTPS://MALMOI100.CHOSUN.COM](https://MALMOI100.CHOSUN.COM))과 말모이 사무국(상

명대 국어문화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았고 온라인으로 22,683건, 오프라인으로 약 70,000건의 단어가 접수됐다.

이렇게 수집된 말모이는 71인의 지역대표가 검토한 다음, 60인의 국어문화원 연구진과 지역어 전문가 등이 정제·검수하는 과정을 거쳤고, 2020년 11월 온라인 사전이 먼저 공개됐다. 그리고 이제 그 모두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 종이 책으로 선을 보인다.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 글쓰기 이미란 외 경진출판, 2021.2.

이 책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글쓰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지금까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 책이 많이 개발됐지만, 대체로 그 책들은 한국어 문법책에 가깝거나, 글의 예시를 보여주는 데 치중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유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필요한 글쓰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 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요구되는 글쓰기 활동에 현실적인 도움을 받고 더불어 한국어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기호적 인간 노양진 서광사, 2021.2.

전남대학교 노양진 교수가 ‘기호적 경험의 체험주의적 해명’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발표한 논문들을 정리하고 몇 편의 글을 더하여 한데 묶은 책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도 ‘체험주의’라는 철학적 시각을 토대로 새로운 ‘기호 이론’의 전반적인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오랫동안 언어철학 분야의 논의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20세기 초반 이래로 언어철학적 논의가 언어의 본성에 대한 불투명한 가정들에 묶여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언어는 독립적인 구조가 아니라 현재와 같은 몸을 가진 유기체로서 우리 경험의 한 국면을 이루며, 따라서 언어의 본성에 대한 탐구는 우리 경험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 자료로 보는 몽골 평화시대 동서문화 교류사 설배환 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1.3.

이 책은 13, 14세기의 몽골제국 시기를 중심으로, 동서양 간에 이루어진 문화 교류에 관한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자료들을 모아 소개한 자료 모음집이다.

이 책은 세계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몽골 평화시대에 대한 동서양의 자료들을 복합적으로 소개하고 있

다는 점뿐 아니라, 그에 대한 다각도의 해설을 짜임새 있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 연구서라 할 수 있다.

수세기 전 각국의 문화 교류 주체들이 남긴 접촉과 교류의 흔적을 좇으며 지금의 세계를 있게 한 문화 전성기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양대박 창 의 종군일기 신해진 역주 보고서, 2021.3.

이 책은 청계도인 양대박(梁大樸, 1543~1592)이 임진왜란 때 전북 남원에서 의병을 일으킨 사실 등을 두 아들이 부친을 따라 종군하며 기록한 일기를 번역했다.

《양대사마실기(梁大司馬實記)》 권1 〈창의(倡義)〉에 ‘종군일기(從軍日記)’로 된 부분이다. 임진년 4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양대박이 두 아들 양경우(梁慶遇)와 양형우(梁亨遇) 등과 함께 전라북도 임실(任實)의 운암(雲巖)에서 왜적을 대파한 것, 이어 전주(全州)에 이르렀지만 과로로 인해 병이 생겨 집에 돌아와 죽기까지의 행적 등이 기록된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감안해 이 책에서는 ‘양대박창의종군일기(梁大樸倡義從軍日記)’로 명명했다.



### 지한 임진일록 신해진 역주 보고서, 2021.4.

이 책은 13, 14세기의 몽골제국 시기를 중심으로, 동서양 간에 이루어진 문화 교류에 관한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자료들을 모아 소개한 자료 모음집이다.

이 책은 몽골 평화시대에 대한 동서양의 자료들을 복

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뿐 아니라, 그에 대한 다각도의 해설을 짜임새 있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 연구서라 할 수 있다. 수세기 전 각국의 문화 교류 주체들이 남긴 접촉과 교류의 흔적을 좇으며 문화 전성기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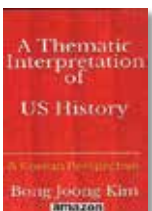


### 성재 용사실기 신해진 역주 보고서, 2021.4.

이 책은 성재(省齋) 고상증(高尚曾, 1550~1627)이 임진왜란 때 경상북도 문경에서 의병진에 직접 참여한 활동과 보고들은 것들을 기록한 일기를 번역했다.

최근에 발견한 문헌을 2015년 경상북도 문경시가 간행한 문경문화연구총서 제11집 『성재 고상증의 〈용사실기〉에 나타난 문경

의 임진왜란사』에 첨부된 《성재집(省齋集)》 영인본의 1592년 4월 12일부터 1598년 12월 12일까지 일기인 〈용사실기(龍蛇實記)〉를 재번역한 것이다. 문경문화연구총서가 비매품인데다 또한 오역과 보충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있었다. 특히, 문경의 의병진 활동을 다룬 전문적 학술서적에 대한 독자들의 접근이 보다 더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A Thematic Interpretation of US History 김봉중 amazon, 2021.4.

This book is aimed at two groups of readers in particular. The first group is American readers, since some Americans may be interested in reading about how their history is interpreted from a Korean

historian's perspective. Due to the position and power of the United States in the world, there are various ways in which historians around

the world, not to mention American historians, understand and analyze US history. The second target reader group comprises the Koreans since the United States is a mirror that reflects Korea's past, present, and future. In that respect, looking at American history from a Korean perspective would help Koreans understand the nation's past and present.



### 가휴 진사일기 신해진 역주 보고서, 2021.5.

이 책은 경부 상주 출신인 가휴(可畦) 조익(趙翊, 1556~1613)이 임진왜란 때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충보군(忠報軍)에 직접 참여한 활동과 보고들은 것들을 기록한 일기를 번역한 것이다.

〈진사일기〉는 1592년 4월 15일부터 1598년 12월까지의 일기이다. 충보

군의 활약상을 비롯하여 왜란 발발과 급박한 변방의 사태, 날도 다급해지는 격문의 내용, 우리 군의 거듭된 패전 및 거짓 보고, 패망한 병졸들의 처참한 모습, 왜적의 복상소식, 피난생활의 참혹한 상황,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관청과 객사 등을 소각하는 왜적의 만행 및 약탈, 민심의 이반 및 훈훈한 민심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



**문병란의 시와 세계** 전남대학교 현대시연구회 문학들, 2021.7.

서은(瑞隱) 문병란 시인의 시 세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한 『문병란의 시와 세계』(문학들)가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총서 열 번째 책으로 나왔다.

이 책을 집필한 전남대학교 현대시연구회는 그동안 문병란 시인의 시를 공동으로 독해하고 상호 논의해 왔는데, 그의 시

를 대중적 소통의 기호로, 당대성과 현장성을 지닌 참여적 예술로, 입 없는 민중의 무기이자 일상을 엮는 도구로, 전라도라는 장소의 특수성으로부터 한반도와 민족 또는 인간 총위의 보편성을 이끌어내는 철학적 텍스트로 바라보며, 그의 시맥(詩脈)과 텍스트 의미망을 추적했다고 한다.



**섬과 바다의 전통지식** 손희하 외 민속원, 2020.10.

이 책에서는 섬과 바다에 켜켜이 새겨진 전통지식의 세계가 담겨 있다. 바다를 무대로 살아온 섬사람, 뱃사람, 바닷사람들은 갯벌과 바다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지식체계를 구축했다.

조석의 변화를 물때지식으로 체계화하고 바람도 각각의 이름을 붙여 지

식화했다. 갯벌도 여러 의미를 담아 이름을 부여하고, 바닷물고기에 대해서도 어보를 기록하여 지식을 축적했으며, 항해와 어로 관련 지식도 마련해 놓았다. 이러한 섬과 바다의 전통지식을 집약하기 위해 제 1부 '섬과 바다에 대한 환경지식', 제2부 '물고기 어류지식', 제3부 '어로와 항해에 대한 지식' 등 총 3부로 책을 구성했다.



**오늘의 기분** 심영의 푸른사상, 2020.10.

심영의 소설가 겸 문학평론가의 장편소설 『오늘의 기분』이 『푸른사상 소설선 29』로 간행됐다.

대학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부조리, 일명 지식인들의 속물적 욕망, 그것으로 인해 소설 속 인물들은 끊임없이

소외되고 상처를 입는다.

5·18민주화운동의 기억과 구조적 모순에 빠진 대학사회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책임 윤리와 공동체 윤리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동아시아사 입문** 설배환 외 동북아역사재단, 2020.12.

『동아시아사 입문』은 <고조선의 성장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사의 전개>, <신라의 통일전쟁과 동아시아>, <발해와 동아시아>, <수·

당대 율령체제의 형성>, <6~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미국 뮤지컬과 국가정체성의 형성** 백현미 역 소명출판, 2020.12.

UCLA에서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레이먼드 냅의 『미국 뮤지컬과 국가 정체성의 형성』은 2005년에 출간됐으나 여전히 유의미한 논점들을 보여주는 역작이다. 서론에서 언급하고 있듯, 냅은 미국 뮤지컬의 정체성을 논의하기 위해 종적으로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 인종 배치, 젠더 감성이라

는 프레임을 사용한다.

이 프레임들은 지금·여기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도 여전히 발견되는 것으로서, 냅의 통찰력을 확인함과 동시에 미국의 대중문화가 뿌리를 내린 보편적 근원을 재고하게 만든다.



**우리배 용어사전** 손희하 외 한국문화사, 2020.12.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선조들의 지혜와 손끝으로 전승되어 온 우리나라 조선·항해 기술을 기록한 『우리배 용어사전』을 국내 처음으로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예로부터 배를 이용한 교류가 활발히 이뤄졌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

한 배 ‘한선(韓船)’을 만들고 발전시켜 왔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전통한선을 복원·재현하면서 얻은 경험과 선공들의 조선기술을 기록하면서 쓰인 ‘우리배’ 관련 용어를 발굴하고, 옛 사공의 항해기술을 채록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민족시인 김남주  
그의 시와 정신을 기리는 공간

# 김남주 기념홀

---

개관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주말: 오전 10시 ~ 오후 5시

(5월 한정 개관)

---

특별개관

신청에 의함

행사 시에는 기념공간 관람이 제한됨



김남주기념홀 운영위원회